

# 광양시 태어난 아이, 광양시가 책임...저출산 극복 총력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 26중 무료검사, 난임시술지원 확대 출산가정 방문 건강상담·양육교육

지방인구 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가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마련했다.

임신, 출산, 육아가 부담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점에 있다.

광양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생애복지)'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플랫폼)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끝자는 생애주기 중심으로 태아가부터 노년기까지 삶을 보살피는 것이다.

◇임신부 건강이 먼저=광양시는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임신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지역 임신부는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무료 산전검사로 풍진검사 외 26종에 대한 검사, 기형아·초음파검사 쿠폰 2회를 이용해 관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료 가능한다.

태아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산·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과 철분결핍성 빈혈 등의 예방을 통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엽산제(3개월)와 철분제(5개월)도 제공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 극복도 필요=광양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임신부의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시술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올해 7월 폐지해 모든 대상자에게 20만원 한도로 검사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난임시술지원 소득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20회로 확대한 데 따라 시술 종류와 여성 나이에 따라 매회 최소 20만~최대 11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도비 지원을 통해 매회 최소 50만~최대 150만원의 지원도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도= 광양에서 출산을 한 가정(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에는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기본방문 또는 지속방문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과 양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태아 유행과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추가로 유축기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출산가정에는 보건소에서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에서는 자체 보유한 전통식 유축기와 소모품을 1개월 동안 출산가정에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난청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경우 청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와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해소를 위해 영양교육 월 1회와



광양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 교실에서 광양지역 임신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광양시 제공)

보충식품이 매달 2회 제공된다.

이항 출생보건교장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 전반에서 임신부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해 아이

놓고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 다음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본격 실시

###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가정에서 '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여수시는 의료기관 장기 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 이번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아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받게 된다.

여수시는 현재 25명이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달 말 9명이 서비스 종결될 것으로 예상, 장기 입원 퇴원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본사업 전환 후 '1개월 장기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추가로 1인당 서비스 지원 한도금액을 월 60만 원에서 20% (72만 원) 인상했다.

여수시 담당자는 "제도가 개선된 만큼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시, 美 픽사 김혜숙 애니메이터 초청 특강 연다

### 오늘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인사이드아웃2' '엘리멘탈' 등 제작

순천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미국 '픽사 스튜디오'의 김혜숙 애니메이터를 초청해 18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특강을 개최한다.

김혜숙 시니어 애니메이터는 지난 2021년 픽사 스튜디오에 입사해 전 세계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은 '인사이드아웃 2'를 비롯해, '엘리멘탈', '버즈 라이트이어'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김 애니메이터는 픽사 입사 전 '보로로', '미니특공대' 등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을 작업

했다. 미국의 소니 픽처스에서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초청 강연은 노관규 시장이 지난해 11월 한국판 K-디즈니 구상을 위해 미국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방문하면서 김혜숙 애니메이터와 연을 맺으며 성사됐다.

김 애니메이터는 글로벌 무대에 서게 된 과정과 경험, 창의력을 잃지 않는 스토리텔링 기법 등 국제 경력을 쌓기 위한 전략을 지역의 예비 애니메이터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할 계획이다.

이번 초청 강연은 지역 대학생, 청년, 애니메이터 지망생 등 청취를 희망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산업팀에 전화하면 된다.

노 시장은 "순천을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문화산업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글로벌 인재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강연은 지역 청년들이 세계 무대를 향해 꿈을 펼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역의 학생들이 순천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보성군, AI 사물인터넷으로 노인 건강관리



보성군 보건소 직원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건강 관리 대상자를 검진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65세 이상 220명 대상...스마트기기 활용 혈압·혈당 등 확인

보성군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65세 이상 주민 220명의 건강을 관리한다.

보성군 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참여자 220명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는다. 이 기기는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역할을 한다.

보성군 보건소 전문 인력은 스마트폰 앱 '오늘 건강'을 이용해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다.

참가자는 보성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와 식생활, 신체 활동, 투약 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고령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간 건강, 혈압측정, 혈당 측정 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측정된 결과는 대상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보건소에 전송돼 건강 측정과 건강 상담·교육 등에 활용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구례군 '행복한 엄마 지원 프로그램' 호응 속 마무리



구례군은 지난월부터 진행한 '행복한 엄마 지원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 가정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1회 총 5차에 걸쳐 진행됐다.

에든버러 산후 우울증 자가 척도 검사를 통해 전문가가 산후 우울증 예방과 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를 알아보는 시간 ▲나와 아이를 위한 축하케이크 만들기 ▲미술 상담 치료 ▲나만의 향을 찾자 ▲술숙의 요람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마지막 회차에는 참여자들이 생산재 내부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다과를 즐기면서 서로의 육아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양한 육아 정보와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것이 구례군의 설명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엄마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를 한층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대한민국 춤명상축제 in 곡성' 26~28일 목사동면 들말센터



곡성군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곡성 목사동면 들말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춤명상축제 in 곡성'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행사의 올해 슬로건은 '100명의 친구들과 함께 100개의 드림, 1000개의 소리, 1만개의 몸짓이 어울려 하나의 하트가 된다'이다.

올해 행사는 17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할 계획으로 몸의학과와 협동조합 '그리곡성'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곡성군이 후원한다.

2박 3일 진행되는 행사기간에는 소리와 몸짓, 소통과 치유, 움직임과 명상, 기쁨·사랑·삶을 노래하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6일 첫날 대북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다양한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드림서클, 9waves, 서클댄스, 만트라 사운드, 전통타악 공연이 진행된다.

27일 둘째날은 굿모닝 댄스클럽, 차크라 사운드, 수피 춤명상 공연, 만트라 회전 명상, 홀라, 핸드팬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춤명상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메가 9waves를 비롯해 수피 춤명상, 파이널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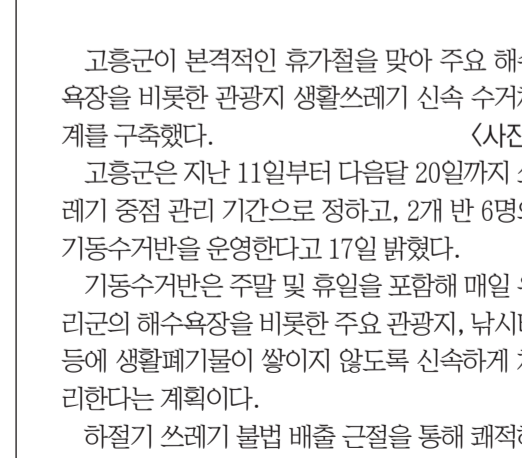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일반적인 지역축제와는 다르게 '춤과 명상', '소리와 몸짓'이라는 특별한 콘텐츠를 지역의 환경, 문화와 연결해 개최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는 것이 곡성군의 설명이다.

또 이번 축제는 친환경축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제로 진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춤명상 소리 축제로 지역주민의 섬김을 중심으로 치유와 관광, 건강과 활력을 문화 콘텐츠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고흥군, 휴가철 관광지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체계 구축



고흥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체계를 구축했다. (사진)

고흥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쓰레기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2개 반 6명의 기동수거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동수거반은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해 매일 우리군의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낚시터 등에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절기 쓰레기 불법 배출 근절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관광지 환경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동수거반은 취약지역 불법 소각행위 순찰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도 여름철 청정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을 철저히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정 고흥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활 쓰레기를 즐기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름휴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강중 기자 gjju@kwangju.co.kr

## 보성군, 공공·지역공동체 '직접 일자리 사업' 시행

22일까지 46명 모집

보성군은 오는 22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46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은 '공공 일자리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 취약계층을 지원해 고용을 촉진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2월 6일까지 4개월간이며, 참여 대상자는 18세 이상,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인 보성군민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공공 일자리 사업'은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14개 사업에서 총 34명을 선발하며, 환경정화, 재활용선별장 운영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무인 기자역 안전도우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버스 승강장 환경관리 등 5개 사업에서 총 12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은 신분증, 기타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 가구당 2인 이상이 신청하거나 공공 일자리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